

뮤지컬 토크콘서트 '후 엠 아이' 주역 길성원·양준모·이진희

우리나라 최정상 뮤지컬배우들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이듬하여 '릴레이 도네이션 콘서트'다. 뮤지컬 토크콘서트를 표방하는 '후 엠 아이'(Who am I)는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의 그늘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을 문화 예술지원을 통해 돕고자 하는 배우들의 바람에서 시작됐다. 5월 8일 '나를 찾아'(Who am I)라는 테마로 서울 서초동 환물결 화이트홀에서 대장정을 시작한다. 첫날의 메인 게스트인 전수경을 비롯해 김소현, 최정원, 이진명, 정선아, 송용진, 박은태, 윤공주 등 이듬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국내 최고의 뮤지컬배우들이 릴레이로 출연하게 된다. 기획부터 공연장 대관, 홍보, 섭외까지 일일이 발로 뛰며 '작한 콘서트'를 만들어낸 '후 엠 아이'의 주역인 뮤지컬배우 길성원(아르츠 대표), 양준모, 이진희를 세종로 스포츠동아에서 만났다.



전수경, 김소현, 최정원, 박은태 등 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릴레이 출연하는 뮤지컬 토크 콘서트 'Who am I'가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수익금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예술 교육비 지원 등에 사용하는 나눔공연이다. 'Who am I'의 주축멤버인 (왼쪽부터) 양준모, 이진희, 길성원. 김중환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un

뮤지컬 ★들의 착한 속삭임, 들어보실래요?

전수경 김소현 등 아름다운 재능기부 동참 뮤지컬 넘버 들려주고 솔직한 입담 자랑

총 10회...수익금은 소외된 청소년 지원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힐링무대 만들었죠

- 어떤 무대가 될지 궁금하다.

길성원(이하 길): "나와 양준모씨가 MC이다. 공연마다 메인 게스트가 초청된다. 게스트는 뮤지컬 넘버(노래)를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 노래에 녹아 있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양준모(이하 양): "그럼으로써 배우는 콘서트의 타이틀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며 관객들도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공연이다."

- '나눔'과 '힐링'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돕게 되나.

이진희(이하 이): "판매수익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대해 꿈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길: "배우와 청소년들을 멘토와 멘티 개념으로 묶어줄 것이다. 일화성이 아니라, 공연이 끝난 뒤에도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양: "법무부 산하 청소년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매회 50석씩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과 선생님을 위해 객석을 기부할 예정이다."

-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면.

양: "그 동안 김대표와 여성노숙자, 병원 위문공연 등을 계속해 오며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동기는 TV였다. TV 프로그램에서 소년원 친구들이 합창을 하는데, 솔로를 부르는 친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대학 뮤지컬과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내가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악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아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

- '후 엠 아이' 콘서트는 언제까지 열 계획인가.

길: "12월까지 매월 1~2회 정도씩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내년에도 콘서트는 계속된다. 주옥~"

이: "배우들의 아름다운 재능기부에 뮤지컬 팬들의 힘이 더해진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기대가 크다."

양: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소극장 뮤지컬 콘서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고, 자신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예선부터 한집한집...이창호, 바닥 찍고 돌아왔다

LG베 통합예선 가볍게 통과...5회 우승 도전

23일 제18회 LG베 조선훈합 가왕전 통합예선이 모두 끝났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8쌍씩의 본선티켓을 확보했다. 여덟 판이 두어진 한중전의 승패도 4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통합예선은 한중간 치열한 우승다툼의 예고편이었다. 통합예선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각국의

프로와 선발전을 통과한 아마추어가 모두 출전한다. 그래서 이름도 '통합예선'이다. 이번 통합예선에 한국은 222명이 출전했다. 중국 81명, 일본 36명, 대만도 18명이나 출사표를 냈고 아마추어 강자도 8명이 프로와 맞대결을 펼쳤다.

이번 통합예선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사는 역시 이창호 9단이였다. 이9단이 예선전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낯설다. 팬들

은 여전히 부동의 우승후보로 꼽히며 당연한 듯 본선시드를 받던 이창호의 시대를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창호는 통합예선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하오양 6단에게 95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한국기사로서는 가장 먼저 통합예선을 통과했다. 사실 그가 통합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창호는 2년 전인 16회 대회에서도 통합예선



을 통과해 자격으로 본선에 나갔다.

이창호는 LG베에서만 4회 우승해 최다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2회 우승을 기록한 이세돌과 구리다.

과연 상봉세를 탄 '돌부처'의 화려한 부활을 LG베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우승상금 3억원이 걸린 LG베의 본선 32강전은 6월 10일, 16강전은 12일에 열린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컬처박스

렌즈에 담긴 무대박 무용수의 춤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조던 매터 지음, 이선헌·김은주 옮김 | 시공사)

꽃밭 위 공중에 누워 있는 남자. 비 오는 거리에서 빨간 우산을 들고 공중으로 뛰어 오른 빨간 외투 차림의 여자. 눈을 의심하는 사진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걸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 혹시 포토샵? 아니면 보이지 않는 와이어라도? 결론부터 말하면 100% 리얼이다. 이 사진집은 지하철역, 횡단보도, 도서관, 욕실 등 우리 주변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들을 포착했다. 처음엔 무용수 홍보용 사진으로 시작했다가 세계 불로거들의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사진 못지않게 특색 있는 사진 제목을 읽는 재미도 솔솔하다. 삶이 지루하거나 '뭘 고민한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펼쳐보면 효과 100%.

현명한 '자기표현의 기술' 완전정복



●자기표현 심리학(사이트 이사무 지음, 최선임 옮김 | 스카이)

"당신이 최고야!"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제스처이지만 태국에 가면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욕이다. '오케이'라는 의미의 손동작을 프랑스에서 했다간 뽀얗기 십상이다. 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표현도 기술이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 책은 자기표현 방법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명하고 능숙한 자기표현으로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겨 보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형모 기자

■ 눈길가는 새책

●크리에이터의 발상법(지플론북 편집부 지음 | 지플론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침서. 다양한 직종 43인의 아이디어 창작과정을 담았다. ●여자들의 시간(황민정 지음 | 형설라이프) 동성박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세상의 편견에 온몸으로 저항한다. ●달리는 청춘의 시(윤승철 지음 | 이야기나무) 사하라사막, 아타카마사막, 남극 등 극한 마라톤을 달리며 만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사색이 담겨있다. 생생한 사막과 남극의 화보도 볼거리. ●우리 활 이야기(정민영 지음 | 학민사) 우리 고유문화이자 전통 무예인 우리 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개설서. 역사책엔 없는 명공들의 이야기도 수록했다. ●하루 습관(하마구치 나오타 지음, 고경문 옮김 | 가름)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살자고 외친다. ●전주낭독(정원선 지음 | 북코리아) 전주를 속속들이 누비는 뒷골목 리포트. 전주의 역사, 음식, 여행 등 총망라.

김스 스포츠 (kim's sports)의
"티나" (teena) 중소기업
직영광고

공기주입형
Size: 160cm

아름다운 모습...
"티나" (teena)는 "리사" (Lisa)의 후속 작품으로 두껍고 내구성 있는 튼튼한 고가의 재료만 사용하여 만든 최고급 최신허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여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공기 주입형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김스 스포츠"는 1999년에 창립한 회사로 가격 보다는 품질을 으뜸으로 여기며 항상 변함이 없는 광고와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로 인정받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최신허 A/S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이 필요로 하는 "티나"는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화면으로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주소창에 → <http://김스스포츠.한국>

제품문의 010-3500-5324 (02) 423-0020
인체모형 예술완구 전문제작사
김스 스포츠 (kim's sports)
"김스 스포츠"는 허가받은 일반제조사업자입니다.

디지털 발기골

1. 발기율리 = 병원에서 봉
임플란트 시술과 같고 약 4
센치 콘돔토시로 끼우면
디지털이 혈액을 올려 안
아프게, 길고, 굵게 발기
된다.
2. 사정해도 죽지 않고 3시간
이상 발기 지속.
3. 즉시 발기 안 되고 조루
증 안 없어지면 환불보장.
4. 각종 링, 성기동맥혈류
증전기, 펌프처럼 성기목
을 아프게 조여 혈액을 즉
사시켜 완전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5. 당뇨, 고혈압, 성기학
대자, 전립선암수술자, 90
대, 완전발기불능자, 즉시
발기된다.
6. 발기약 안 먹고 발기되고, 표시 안나 아내도 속는다.
7. 성기 작은 사람 혈액을 디지털로 통증 없게 풍선 바람 많이
넣듯 올려, 길고, 굵게 확대한다.
※ 젊을때 시작하면 더 많이 길어진다.
8. 인체에 해가없고, 반영구적 특제품.

***양기환은 남자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계좌 : 농협 351-0180-1510-63 구민속
서울시 영등포 대림동 1062-33 / 통신판매번호 2012 영등포 0381 멀티미디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증-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광항/광명/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이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남성수술

왕십리점 02-2297-9616
서울 성동구 도선동 46 금강빌딩 2층
(2호선/5호선 광삼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성대우빌딩 3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 명동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2 시그마타워 4층
(1호선 숭례역 2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2-2번지 메트로빌딩 7층
(분당선 아람역 1번출구)
부산점 051-817-852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 SS메디칼빌딩 2층
(서면역 9번출구)
광주점 062-369-7532
광주광역시 서구 노성동 480-24 무등3타워 3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

ManClinic **비뇨기과** **맨남성의원**

진료 내용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발기부전 (원터치약물주입요법/봉합술) **귀두/음경확대**

대표 전화 **1577-7574**

레이저포경수술 / 성병종합검진
김이연장 / 바세린제거술
음경만곡증 / 정관수술

강남신사역 02-592-2220 일산 031-932-7933
신사역 5번출구 K타워 5층 맨남성의원 백석역 1번출구 맨비뇨기과의원
노원 02-935-8777 인 천 032-439-0007
노원역 8번출구 맨남성의원 안원티미널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 맨남성의원
신도림역 02-3439-7582 부 천 역 032-657-0008
신도림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부천역 대성병원 맨비뇨기과의원
천호역 02-477-3477 안양 평촌 031-421-7511
천호역아파트역 브라운스톤천호 맨남성의원 안양역 4번출구(롯데백화점 4층) 맨비뇨기과의원
수원역 2.3번 출구 맨남성의원 수원역 2.3번 출구 맨남성의원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티미널 사거리 맨남성의원
대전 042-484-7373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 맨비뇨기과의원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맨남성의원
여수 순천 061-721-2555
최혜동 초려성거리 맨비뇨기과의원
대구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맨비뇨기과의원
포항 경주 054-231-7001
성원동 스타타워상가 302호 맨남성의원
부산서면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천왕빌 4층) 맨남성의원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맨남성의원

www.manclinic.co.kr